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6388.47 (+169.38)	코스닥 1179.03 (+4.18)
금리 (연이자율) 3.330 (-0.018)	환율 (원/달러) 1470.50 (-6.70)

metro 경제



‘증시 활황’ 210조 은행자금, 증권사 갈아탔다

(지난 1년간)

은행 요구불잔액 3주새 19조 급감
IMA 등에 최대 170조 유입 전망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잇자 은행 예·적금에 머물던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잔액은 680조9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18조9845억원이 급감한 수치다.

시중 통화량 증가폭도 제자리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2026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M2(광의 통화)는 6000억원 늘어난 4114조원으로 전월 4113조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요구불 예금(-2조9000억

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1조8000억원) 등이 줄면서 전체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증가 둔화는 증시로의 자금 이동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신용평가(한신평)의 ‘K-IB(기업금융) 2.0 머니무브 속 중투사의 현주소’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주식형 펀드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399조원이다. 지난 1년 사이 증권업계로 210조원 뭉치돈이 옮겨간 것이다. 주식시장 호황과 발행어음·IMA 열풍이 맞물린 결과다.

시장에서는 최대 170조원의 자금이 발행어음과 IMA 등 증시 주변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증권사(종투사)는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으면 지정된다. 4조원 이상이면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이면 IMA 업무가 가능하다. 발행어음

은 현재 7개사로 확대됐고 잔고는 51조원을 넘어섰다. IMA도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출시한 데 이어 올 3월 NH증권까지 가세했다.

IMA는 출시 직후부터 ‘오픈런’ 양상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이 지난 6일 출시한 1호 IMA 상품 ‘N2 IMA1 중기형 1호’는 총 4000억원 규모가 모두 판매됐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각각 모집한 4호, 2호 IMA 상품도 모두 목표 설정액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1호 IMA 상품 경쟁률이 5대 1에 달했고, 2호 상품도 모집 3일 중 이를 만에 조기 완판됐다. 3월말 기준 IMA잔액은 2조8000억원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증권사 한 곳이 IMA까지 합쳐 자기자본

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를 근거로 증권사의 발행어음·IMA 통합 전체 한도를 139조7000억원으로 추산한다. 현재 발행잔액(53조4000억원)을 제외한 추가 조달 여력도 8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인수진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삼성·메리츠증권까지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170조원대 시장이 된다”고 전망했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며,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계 자산의 약 80%는 부동산과 예금에 집중돼 있다. 자본시장비중은 10%가 채 안 된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스

조선·AI·방산 넘어 외교 등 전방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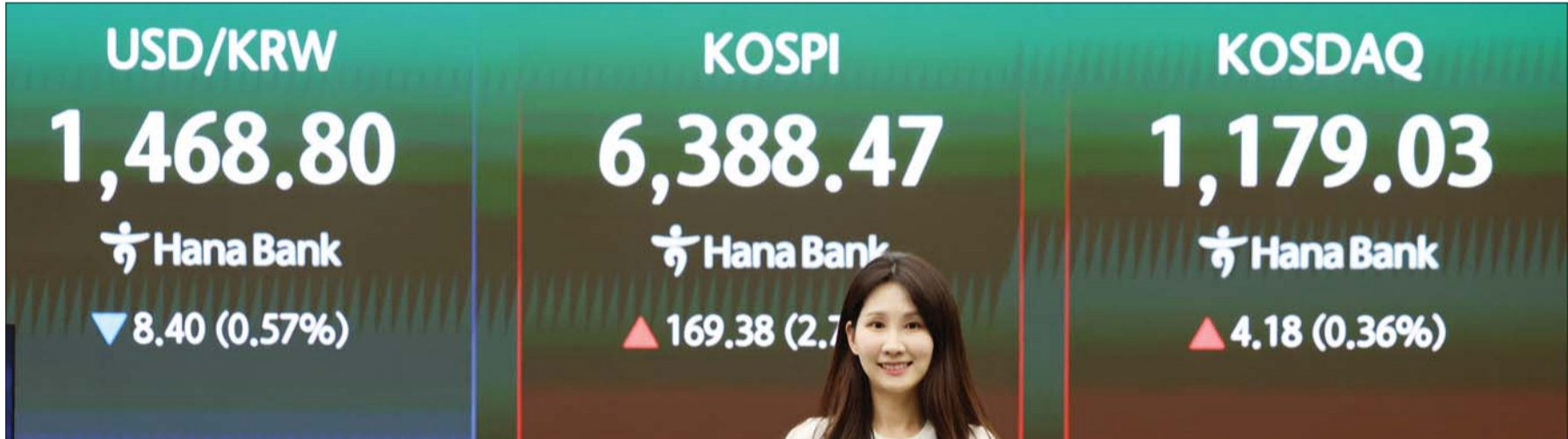
李 대통령, 인도 정상회담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21일 인도 국민 방문을 계기로 조선·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한국과 인도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장벽과 규제도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력 MOU(양해각서)’를 개정해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이 아니라, ‘제2의 코리안웨이브’를 중소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반’ 설치도 약속했다.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이니셔티브(IPOI)’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83.45포인트(1.34%) 상승한 6302.54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4.8원 하락한 1472.4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1.38포인트(0.97%) 오른 1186.23에 거래를 시작했다. /뉴스스

‘6388’ 하늘 뚫은 코스피

외국인 매도… 추가 상승 핵심 변수 하이닉스 ‘신고가’, 삼전도 상승세

코스피가 다시 6300선을 뚫으며 ‘불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인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은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26일 6307.2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중동 전쟁이 터지자 3월 3일부터 연이틀 7%, 12% 넘게 폭락한 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5052.46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약 두 달여 만에 6300을 재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4.97% 오른 122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122만8000원까지 올라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2.10% 올라 21만9000원을 기록했다.

시장은 코스피의 ‘강세장 2막’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티모시 모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와 산업재 전반에서 펀더멘탈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목표치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AI의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린 점이 이번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은 약 7.5배 수준으로, 과거 시장 고점 당시 중간값인 10배와 비교하면 추가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



‘통화·정책·소통’ 중앙은행 재설계 시험대

한국은행 신현송 號 출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첫 과제는 금리만으로 풀기 어려워진 ‘복합 충격’ 관리가 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첫날부터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정책 유효성 제고, 양방향 소통, 금융안정의 새 틀을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신현송호’가 출범과 동시에 ‘금리의 방향’보다 ‘중앙은행 역할의 재설계’를 먼저 시험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금리보다 ‘정책 유효성’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방압력과 경기하방압력이 동시에 커졌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정학 갈등과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통상 갈등 재편, 인구구조 변화와 부동산·가계부채문제까지 겹친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내놨다.

신 총재가 첫날 내놓은 해법의 출발점은 금리 방향 자체보다 통화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가깝다.

그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정부, 지자체에 “고유가 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 유통 안돼” /사진 뉴스스
- ▲ 외교부 “중동 상황, 亞太 에너지·공급망 등 영향…역내 협력 중요”

- ▲ 김 총리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고유가 피해 지원 등 신속 집행”
- ▲ 與, ‘정동영 사퇴 촉구’ 국힘에 “지선용 자해 안 보팔이 장사, 도 넘어”

- ▲ 국힘 “李, 정동영 발언 ‘문제없다’ 방어막…즉각 경질해야”
- ▲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與, 3~4인 선거구 공천 철회해야”